

[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새로운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작 사실을 숨기고 영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건데요, 왜 그랬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우성씨가 영국으로 간 건 지난 2008년 1월입니다. 어학연수 명목으로 7개월 동안 체류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유씨는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자신을 탈북자로 소개했고, 이름도 '조광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씁니다. 한국에서의 정작 사실을 숨긴 겁니다.

검찰은 이 시기를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활발히 모으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간첩 활동에 염증을 느껴 제3국으로의 도피를 생각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씨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씨에게 난민자 카드를 주고 매주 7만원 가량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도 유씨에게 매달 38만원 가량의 생계지원비를 줬습니다. 결국 유씨는 7개월 동안 2개국에서 2개의 이름으로 이중생활을 한 셈입니다.

유씨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의문이 커져 가고 있지만, 유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유우성 보도자료에 대한 유우성 본인진술]

**간첩 공무원, 영국서 망명 신청했다.**

먼저 저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3년 1월 10일 억울하게 간첩으로 긴급 체포 되어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전체 무죄 와 북한이탈주민법과 여권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 또한 1심 재판부에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번 사건에 주인공이 되어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에 관심 가져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사를 쓰는 건 기사 선생님 마음이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왜곡하지 마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첩 공무원 영국에 망명하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 1심에서 국가보안법 무죄를 받고 2심에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 2. 영국에 망명 간적 없습니다.

2007년 8경 중국 - 북경 “ 사법대학교 ” 교환 학생으로 중국 갔다 주민등록번호 탈북자인 것을 중국출입국에서 알고 비자를 주지 않아 강제로 한국으로 출국 당했습니다.

그 후 대학교 고학년 올라가며 영어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 또한 영어 시험도 통과 해야만 졸업 할 수 가 있어..... 영어를 배우고자 영국에 유학 갔다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 등록금은 너무 비싸고..... 한 달 기초 생화 비용은 38만원 밖에 안 되어 학원비용 까지 총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여 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탈북학생들 다 똑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여러 탈북선배 지인으로부터 영국에 난민으로 가서 영어공부를 6개월에서 1년씩 배우고 오는 탈북청년들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영국으로 망명간 것은 아니고 순수 영어 배우러 간 것입니다.

2008년 1월경 종로에 있는 영어 유학원에 등록하고 그동안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난민으로 신청한 탈북자분 집에서 영어 학원을 통근하여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막상 영국현지에 도착하고 나서 현지 탈북자 분과 함께 살며 월 세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랫동안 머물

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난민들 상대로만 영어를 공짜를 가르쳐 주는 영어클래스가 여러개 있어 저로써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에 다른 탈북자들과 똑 같이 난민 신청하고 난민 영어 반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생활비용은 얼마 받지 못했고요..... 저는 혼자서 알바하고 세차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난민을 가르쳐 주는 영어반과 자비로 돈 들여 영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영어공부를 6개월 동안 마치고..... 2008년 6월경 한국에 돌아 와 바로 복학하였습니다.

영국에 간 것은 단순 영어 배우러 간 것뿐입니다.

진실의 본질을 왜곡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해주십시오.

또한 영국유학 기간 동사무소에서는 휴학하면 자동으로 생계비는 정지 됩니다. 2중으로 기초생활 비용을 받은 적 없구요..... 2중 생활 한적 없습니다.TTT 필요하시다면 제가 통장 정리한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2. 이름을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

1. 유가강이름은 제가 북한에서 쓰던 (중국 이름)입니다. 북한에서 유가강 만 쓴 것은 아니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광일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국에 마쳐 들어오면서 바뀐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북한에서 애용하던 이름이 유광일입니다.

중국식 이름 유가강은 발음상 힘들어 친한 분들은 유광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식 서류에는 다 ( 유가강)으로 표기 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4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하며 저는 북한에서 평산시 애용하던 유광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2010년 조사받을 때 이미 다 말씀 드렸던 내용 들입니다.

## 2. 유광일 - 조광일

유광일로 한국에서 살면서 영국 유학 시기 난민 신청하며 한국에서 쓰던 이름과 똑 같이 신고 할 수가 없어 그 때 당시 “ 조광일” 로 신고 하고 영국에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 무료 영어강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영어 배우러 간 탈북청년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수십 명 넘습니다.

기자 선생님 필요하시다면 그 분 들과 직접 인터뷰 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 그 때 아주 잠깐 6개월 ” 동안만 사용했던 이름은 조광일이며 수사 기관 조사 당시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진술 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족 있고 돈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영어유학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름도 조광일로 신청할 일 없었을 것입니다. 순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왜곡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 3. 유광일 - 유 우성

저는 2008년 말부터 2010년 7월 까지 국정원, 경찰청,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3월경 가택수색도 당했고 전화도청도 수사기관에서 오랫동안 해온 것을 나중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저는 6개월 넘게 한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1년 넘게 진행되어 2010년 7월에..... “2006년 5월23일 -5월 27일 4박 5일 어머님 장례식” 갔다 온 것은 (남북한 교류 협력위반) 법으로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사를 오랫동안 받으며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운명이 너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점집을 찾아다니며 점을 여러 번 본적 있습니다. 그 당시 점 보시는 분은 이름 안 좋다며 바뀌야 운수도 좋아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국에서 한국사람 이름으로 살 것을 생각하고..... 또 이름 바뀌면 운수도 좋다고 하여 고민 끝에 결심하고 점집에서 만들어 준 (유우성)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장하고자 이름을 개명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 자신이 운명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 또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이름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로 그때 점집에서 받은 이름에 대한 해석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 3. 생년월일에 대한 설명

1980년 9월 18일에서 1980년 10월 26일 바뀌게 된 원인

저의 생일은 1980년 10월 26일입니다. 그러나 음력으로 1980년 9월 18일 도 생

일 맞습니다.

2004년 4월 대한민국 입국당시 합신센터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는 주로 음력생일을 많이 쓴다고 하여, 저는 음력생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등록에는 당연히 양력생일 1980년 10월 26일 생일이 기재될 줄 알았습니다.

2004년 8월경 교육기관을 걸쳐 사회 나왔을 때 제가 받은 주민등록증은 음력생일 9월 18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저는 대학교 졸업시기 법원에 제대로 된 양력생일 10월 26일로 정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북한은 언젠가는 통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면 북한에서 받은 준 의사 자격증 등은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 북한에 공식서류에 기재된 양력생일 10월 26일로 통일화 하자는 생각에 생년월일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정 보도 해줄 것을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건에 관심 가져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하나 사실은 왜곡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TV조선 채널을 즐겨 보는 한 신청자입니다.

항상 있는 사실 그대로 방송하는 공정한 방송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자선생님 2014년에는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만 전 할 수 있는 한 해 가되길 기원 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성배상.